

다들 아는 역사학자 김민석이 뭐예요?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특등노복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최근 남조선외교부장들이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앞으로 추진할 《7대국정과제》를 담은 2022년도 대외정책추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한미동맹중심》의 당당한 외교기조로 주변 《4강외교》를 추진하겠다고나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말에 《북미대화》를 실현하며 북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니 하는 립장을 밝힌것이 그러하다.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공조》로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박의 도수를 높이는데 필요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겠다는것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해당되는 가련한 추태라 하겠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갈수록 흔들리고있는 가운데 나라도 자기 시대대 다 산 미국에 등을 돌리고 국익우선의 외교를 지향하고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역적패당만이 미국이라는 상전의 바지거랭이를 부여잡고 한사코 매달리는 머저리짓을 일삼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미동맹》강화를 앞으로 추진할 《7대국정과제》의 첫번째 순위에 놓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전략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니, 미국의 가치외교와 인디아태평양전략의 요구에 맞게 지역별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것이라니 한것은 명백히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뼈속까지 체질화된 사대굴종적본성의 뚜렷한 발로이다. 이번이 아니라. 이번에 역적패당은 《한일관계》개선을 위해 결심돌로되고있는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쌍방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협력력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관계개선을 성사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인 일본과도 서슴없이 손잡을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 역시 권력유지와 동족대결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그 어떤짓도 서슴치않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으므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역적패당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최근 역도에 대한 지령이 20%대까지 떨어지고 지어 보수세력내에서까지 역적패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막대한 궁지에 몰린 윤석열역적패당은 보다 로골적인 친미, 친일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들의 가련한 처지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내맡겨서라도, 민족의 천년속적과 손을 잡고서라도 동진동화에 몰린 허수아비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것이 역도의 속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상이자.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심을 등지면서 외세에 빌붙어보았겠자 종당에 차레질것은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 박근혜역을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이 면치 못했던 비참한 운명밖에 없다. 한 광일

어지고 지어 보수세력내에서까지 역적패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막대한 궁지에 몰린 윤석열역적패당은 보다 로골적인 친미, 친일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들의 가련한 처지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내맡겨서라도, 민족의 천년속적과 손을 잡고서라도 동진동화에 몰린 허수아비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것이 역도의 속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상이자.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심을 등지면서 외세에 빌붙어보았겠자 종당에 차레질것은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 박근혜역을 비롯한 선행독재자들이 면치 못했던 비참한 운명밖에 없다. 한 광일

7~8월의 철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아침바람. 창살같은 소낙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정없이 쏟아져내린다. 《대통령실》이 들어앉은 이젠 국방부청사의 벽체며 옥상이며 창문이며 하는것들이 흠뻑 젖어 후줄근해진 형체가 어둡게 보인다. 2층에 있는 《대통령》사실의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사무책상과 쓰파파, 벽장과 원탁들도 소낙비의 세례를 받고있는 듯 기를 펴지 못하는것같다. 어두스근한 방안에 탁상등의 희끗한 빛만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음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윤석열역도의 주름진 눈가장자리를 비치고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역도는 기울어진 머리의 판자노리를 손가락으로 짚느라 머릿속은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권력을 차지한지 불과 2개월만에 30%대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데는 20%대라는 역대 최악의 바닥을 치고있었던것이다. 《조, 중, 동》을 비롯한 주요신선문과 《KBS》, 《MBC》 등의 방송사들이 펼쳐나 저저마다 특종뉴스감, 1면 보도감으로 장식하는가 하면 《능력과 자질이 문제》이라니, 《집권 100일도 안되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있다는니, 《집권 5년

윤석열역도가 노는 꼴이 갈수록 가판이다. 《내부총질》이라는 통보문으로 《국민의힘》을 벌동지처럼 만들어놓은 역도가 얼마전에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라는것을 정식으로 발족시킨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아무리 《국민통합》에 대해 외위대도 그것이 한갖 기만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라는것이 세간의 일치한 평가이다. 립내 사회가 적대계급으로 분열되었고 《너를 해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남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이란 어불성설이고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이런 말장난을 끝잘 해왔다. 《사회대통합》과 《대국

민통합》을 부르짖으며 권력의 자리에 재바로오면 리명박역도가 그랬고 박근혜역도 그랬다. 리명박의 집권기간 남조선은 《리념의 광국화》, 《소속의 광국화》, 《지역의 광국화》 등 온갖 사회적으로와 같들이 더욱 격화되었다. 《유신》과 《과소독제》를 부활시킨 박근혜역도 역시 집권기간 진보세력들에 대한 과소적탄압과 인민들의 생존권을 탄압말살하고 사대대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약정으로 사회최모순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하늘땅차이로 만들어놓았다. 박근혜가 떠돌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최순실과 같이 한중도 안되는

《대통령》이라는게 실지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에 뿌연 안개처럼 투박한 공기를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짙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아니라 세태포위론과 《내성고립》을 선거전략으로 써먹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중년층과 여성층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세태갈등,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겼으며 선거판을 청년세대 대 중년세대, 남성대 여성의 대결구도로 치닫게 하였다. 취임후에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망용으로 전 《정권》을 때려잡는 정치보복을

이에 리용했던 게도 잡았다는 뜻)할수 있는가? 《리준석이 (양두구속) (양대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하지 말라고 함의》, 《리준석을 제버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이다》, 《집권총내부로 각종 내부총질과 폭란발언으로 포연이 자욱하다》... 비서실장이 다급히 뛰어들어와 윤석열역도와 권선동사이의 통화내용이 무단수취되어 정계와 사회 각계가 죽자마 뿔뿔한다고 알려진것은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나서였다. 미련한 권선동이 작성없이 《국회》회관에서 손전화기로 통화내용을 작성하던 그 순간 출입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그렇게 되었다는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당원 게시판에는 《실망감과 절망감을 감출수 없다》, 《우리가 지지한 대통령이 맞는지 정말 허무하다》, 《30년 간 지켜왔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사고뭉치인 당지도부는 총사퇴하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야당들과 각계층의 비난공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윤석열역도는 또다시 신경이 뻗뻗해지면서 눈앞이 어절어절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갈수록 침침한산이라더니...》 좀 뜸해지는듯싶던 비둘기가 또다시 작살처럼 내려꽂히기 시작하였다. 마치 역도의 몸통이 그대로 내려박히기라도 하듯... 함금성

만화 《구결절》



요즘 경기도 평택의 배서문에게 큰 변화가 닳다 합니다. 무슨 변인가요? 글썽 얼마전 배서문종족부에 불청객이 느닷없이 이름을 올렸는데 허 참. 그의 인물자료가 얼마나 가관이었습니까? 이름: 배지성 민족별: 아일랜드족 사는곳: 워싱턴 D.C. 아무리 생각해보도 가늠이 안간단가요? 그가 바로 저 태평양너머의 백악관주인입니다. 대대로 자기의 성과 본을 중히 여기며 가문이 배출한 명인과 기인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자랑하는 평택 배서문씨가 오고보면 정말 이런 변고도 또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시령행이 이런짓을 하였는가요요? 물론 남조선에서 친미주자로 공인된 윤석열패당이 지요.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하기는 역도의 성장과정을 보면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코흘리개때부터 숭미, 친미, 공미가 체질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유독 《미국식자유민주주의》, 《미국식시장경제》만은 쉬파리가 범벅에 달라붙듯 관련책들을 늘 고고다녔고 미국대통령 프드가 서울에 날아들었을 때에 는 김포비행장까지 달려가 성조기를 흔들었다나요. 미국것들이 쓴 《선택할 자유》, 《자유론》을 보물

《반레로진》의 미명하에 야가나시트를 사람 맞살 패로 만들어놓은 장본인도, 우크라이나전쟁의 막후조종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제2의 낙조작책동으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그런데? ... 정말 민족의 수치고 특등제앙거리가 분명합니다. 상전의약이라면 무턱대고 숭상하고 추종하는 윤석열인지라 나중에는 바이든의 모든것을 그대로 답아가고있 습니다. 바이든으로 말하면 미국력사상 79살의 《최고령대통령》으로서 건강이상세를 명명합처럼 당고다니는 치매증환자이지요. 며칠전에는 《COVID-19》에 계속 감염되어 조소와 망신을 자초하기도 하였지요. 바이든의 로쇠하고 폐쇄한 로안야말로 몰락하는 미국의 자화상이라 하겠습니까. 거듭되는 금융위기와 세계최대의 군사비지출,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사태와 그로 파생된 경제위기로 하여 지금 미국의 처지는 형언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윤석열이 노는 꼴을 몇타 어둡습니다. 이렇듯만한 말실수로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무지무능과 독선정치로 민생대란, 경제대란을 몰아오는가 하면 외세와 아합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서슴없이 팔아

비화 쏟아지는 작살비는 무엇을 예고하는가

보고 소경 장도칼 휘두르듯했지만 정작 들어온것은 예상밖의 밀시와 참관단 수직뿐이었고 당장 전쟁이 터진다는 아우성뿐이 아닌가. 윤석열역도는 느닷없이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후 때일이 그리워지는 겸사겸사 절이 떨어졌다. 그때는 하고싶은것을 다 했고 정치인인듯 대기업가든 일단 목표를 떠난 마음먹은 대로 주물러왔다. 갑자기 주먹이 근질근질하다가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야성에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며 한참 돌아다니며 땀발이 선다. 찌꺼기려는 거센 숨소리 그리고 침묵... 생각이 이어진다. 머리에 물넘더니 결국 집권 두달도 못되어 지지율이 땅바닥에 곤두박질했지요.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가장 한심한 《대통령》, 회세의 초전광, 투등대국노라고 지탄하고있겠습니까. 미국을 위항하려면 하늘과 땅진체를 걸며바치는것도 꺼리지 않을 윤석열이 이제 남조선정부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자고 할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다만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섬긴 이름의 뜻만은 의미해 불수록 신동하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바이든을 땅에 비유하였지요. 그것은 인디안의 피바다에 야만의 국가를 세운 그때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무참히 무너해 온 죄 많은 미국이 머저리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벌하게 될 친길지육을 뜻함이며, 별에 비유한것은 칠칠아람 우주만리에서 끝없이 추락하여 존재를 마치는 별처럼 의미한다 그것입니다. 친길지육=비행기=바이든. 러런과 로시는 시간표대로 온다고 하였습니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러쉬한 바이든의 잔멸을 신통히도 비유했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숭미, 친미, 공미로 떠러온 명멸과 부패한 권력을 부지해보려고 도모지써도 늑어가는 상진과 운명의 한배를 탔을 윤석열의 종말은 불보듯 뻔하지요. 그리고보면 투등대국노 윤석열의 《효도품》이 정말 해괴한 명목이 분명합니다. 시사만필가 김철화

위기에 몰린 남조선의 집권집을

최근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는 자 손전화기로 당대표 리준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통보문을 주고받은것이 고스란히 공개되어 남조선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되었고.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 윤석열역도는 손전화기를 통해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는 자에게 《현재 당이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 《대통령실》 것들은 파문이 확산되자 도대체 당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것이 무엇이나, 여당으로서 《국회》원구성형상도 라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사적재용론》을 꺼는 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 원내대표가 통보문을 일부러 공개하였다 하면 《국민의힘》 것들을 공격하고있다. 《국민의힘》 것들은 힘있게 살려놓은 당을 《대통령》이 망가뜨리고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 통보문을 보내어 당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윤석열이 직접 사과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통보문공개》 사신을 계기로 《국민의힘》내부도 깨싸움으로 번져지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넘어간 《국민의힘》에서는 조기집당대회소리가 나오는 한편 대표직에서 해임된 리준석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는 조기집당대회로 갈바야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필 천하 보기 드문 《효도품》

순 뜻인가요. 한자로 보면 《당 지》자에서 《별 성》자라고 합니다. 풀이해보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있다는 의미인 《지구의 별》을 뜻하는 데 제임기간 바이든이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후세까지 전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조선반도평화 《수호》와 세계평화유지에 더 힘써줄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찌 보면 미국에 지성을 다하였다는 맹약의 뜻도 있는것같구요. 정말 단단히 미쳤지요. 바이든이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였더니요? 또 세계평화에 기여합디나요? 바이든이 집권해서 한것이란 북한전쟁연습화대, 핵동력항공포합집단의 남조선전격 등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격들의 위기상황에 몰아넣은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과 보수세력내에서는 현 위기를 해결하려면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당내갈등을 총발시키는 《대통령》의 내부총질이 문제이다. 윤석열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정권》은 망했다.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보수언론들도 집권여당의 당권쟁탈에 신물이 난다. 서로 《리해판》, 《윤해판》으로 갈라져 지분싸움만 한다. 집권 100일도 안되어 벌써부터 제사보다는 제발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오말로 권력야욕에 미친자들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조맹해주는 통보문공개사건이 고에 위기에 몰린 정치승장들의 보기 드문 정치문화가 아닐수 없다. 그것은 또한 자기의 정치야욕을 위해서는 살점이라도 빼줄듯이 놀다가도 일단 제 욕심을 채운 다음에는 서슴없이 내치는 윤석열역도의 추악한 기질, 본래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는 회비극으로서 누가 다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리준석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본사기자 김정혁

《대통령》이 아니라 세태포위론과 《내성고립》을 선거전략으로 써먹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중년층과 여성층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세태갈등,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겼으며 선거판을 청년세대 대 중년세대, 남성대 여성의 대결구도로 치닫게 하였다. 취임후에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망용으로 전 《정권》을 때려잡는 정치보복을

《대통령》이라는게 실지하는 일을 따져보면 복과 주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것뿐이다. 경제문제는 당장 해결될 가망이 없고 《대북》문제도 더 이상 서둘러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타이고... 그렇다고 계속 속수무책하면 안된다. 무슨 변통이 있어야 하겠는데... 취부러지는 비발의 운무속에 뿌연 안개처럼 투박한 공기를 바라보던 윤석열역도의 팔알눈이 짙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아니라 세태포위론과 《내성고립》을 선거전략으로 써먹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중년층과 여성층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세태갈등,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겼으며 선거판을 청년세대 대 중년세대, 남성대 여성의 대결구도로 치닫게 하였다. 취임후에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망용으로 전 《정권》을 때려잡는 정치보복을